전법 일기

낡은 승복 입고 경내 손수 관리
단단한 수행 삶 가슴 깊이 남아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은 눈 때문에 많이 막혀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서미사 주지 스님(故 일면 스님)께서 통도사 부근의 토굴에서 용맹정진 수행을 마치시고 해제하신 날이자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라, 처음엔 공항 배웅을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여러 번 간청 드린 끝에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께서는 마치 여름옷처럼 얇고 낡은 승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는 매서운 날씨에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날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다니, 깜짝 놀라 인사를 드린 후 어찌 된 일이냐고 여쭈니, 스님께서는 한국에 입국하실 때 입었던 승복은 이미 벗어 다른 스님께 드리고, 그 스님의 가장 낡은 승복을 대신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지 스님은 칠십 중반의 연세셨지만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주지 스님을 뵌 것은 2000년, 미국 시애틀에 머무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미국인으로부터 서미사 이야기를 듣고, 여름방학을 맞아 뉴욕에서 온 딸과 함께 지도를 보며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대지 위 작은 언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대웅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계사 대웅전만큼 크진 않았지만 한국 전통 사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모습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불보살님께 삼배를 올리고 법당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주지 스님께서 처음 보는 저희 모녀를 향해 공양을 하고 가라 하셨습니다. 공양간 절밥이 맛있다고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젊을 적 통도사에서 공양주를 하셨다며 음식도 잘한다고 웃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 쇼펜하우어의 철학 서적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출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오대산 사자암 중대나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며, 한 번 선정에 들면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오대산 백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 들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서미사 경내는 아주 넓었지만, 주지 스님께서 혼자 손수 관리하셨습니다. "절이 잘 유지되어야 신도들이 오래도록 불법을 들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며 잔디도 직접 깎고, 건물 수리도 직접 하셨습니다. 신도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시고, 특히 홀로 되신 연로한 분들을 찾아 병문안을 가시며 불법을 전하고 위로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땅에 한국 전통사찰을 우뚝 세우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주지 스님께서는 2년 전 열반에 드시며 6과의 사리를 남기셨습니다.

눈보라 치던 겨울날 공항에서의 그 만남과 스님의 웃음, 얇은 승복 너머로 비쳐지던 단단한 수행자의 삶은 지금도 제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송마나의 **시절인연**

깨고 싶지 않은 부처 되는 꿈

6월의 한낮, 산들바람이 이마에 내려앉았다. 살포시 눈을 떴다. 금계국이 가득한 들판에서 나와 노닐었던 흰 구름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 소파에서 깜박 잠이 들어 꿈을 꾸었구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좋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쉬웠다.

아름다운 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세상이 각박해도 꿈을 지닌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험하고 먼 길을 갈지라도 푸른 꿈을 품은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지는 꿈은 참된 꿈이 아니다. 바람에 쉽게 부서지는 꿈은 진정한 꿈이라 할 수 없다. 꿈은 영원에 뿌리를 내리고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꿈의 세계는 경계가 없다.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도 꿈속에서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다. 눈 내린 겨울에도 우리는 꿈속에서 파랑새가 되어 열대의 해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 꿈을 지닌 사람은 존재의 뿌리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으로 현실 너머의 세계를 향해 끝없는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꿈은 소망과 상상력의 근원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신화를 창조해 왔다. 그 신화에는 인간이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생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실존적 꿈이 담겨 있다. 동화 역시 인간의 도덕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는 꿈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아무리 이성과 개념의 힘이 강하다 해도 상상력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무(無)의 차원까지 꿰뚫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림 · 최주현

인간이 무한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유한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흙덩이가 되고, 짐승이 되며, 기계가 된다. 시간에 갇힌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무한한 우주를 창조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문학, 미학, 심리학, 철학, 종교는 물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창작의 산물이다. 창조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무의식의 날개를 펼쳐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소크라테스는 독주를 마시고 죽기 직전에 이솝 우화의 이야기 몇 편을 시로 지었다. 〈파이돈〉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나는 철학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지만, 신이 꿈속에서 음악을 만들라고 명령했기에 시를 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빛나던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꿈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시를 지으며 이데아의 세계로 날아갔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임종을 맞이할 때 〈시편〉 22편을 읊조리며, 기적을 갈망하는 민중에게는 요나의 상징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다.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가 밖으로 나온 것은 부활의 상상 아닌가. 예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천사들처럼 하늘나라로 날아오르기를 꿈꾸었을까. 인간이 무한을 꿈꾸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본향(本鄕)을 그리는 향수가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가 완성되는 꿈을 꾸어야 한다. 바로 부처가 되는 꿈이다.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으랴. 잠은 깨어도 좋지만 부처가 되는 꿈만은 깨어나고 싶지 않다. 〈작가〉

기자칼럼

'차별 없는 세상' 발원, 오요안나 추모 위령재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세상을 등졌다. 그는 생전 '무늬만 프리랜서' 신분으로 정규직과 다름없는 업무와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적 보호에서 배제했다. 고인의 죽음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방송사의 구조적 문제와 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는 고인을 애도함과 동시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6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봉행한 위령재가 그것이다. 스님들은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MBC 사옥을 돌았다.

이번 위령재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 의식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자리였다. 사노위 수석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발전소, 조선소, 방송국 등 다양한 현장에서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작업의 외주화가 곧 생명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C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부당한 고용구조에 맞선 방송 노동자들과 단체 등도 이날 고인의 죽음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방송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위령재는 '생명의 외주화'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와, 불평등한 고용 구조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호소를 담고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다. 제2의, 제3의 오요안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차별 없는 노동 환경'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배희정 편집국 객원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2025 선명상 지역 축제

지역사찰 프로그램

주최	날짜	지역	장소	특화 프로그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5.27(화)~29(목)	경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심주 목걸이 체험 및 선명상 강연 등
조계종/ 인천강화전법단	6.21(토) 오후 5시~8시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2025 인천시민 행복을 위한 국제 선명상 대회 - 선명상 강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 선명상 실참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 - 인천시민을 위한 축원 (어산어장 동환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6.28(토)~29(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쿠무다	제2회부산글로벌명상제 연계 (쿠무다 및 송정해수욕장) - 심주목걸이 체험 등
세종 광제사	7.6(일)~27(일) 매주 일요일(총 4회)	충청	세종 광제사	제1회 연꽃축제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 - 심주 명상(금강스님), 선명상 앰버서더 체험 프로그램 등
백양사/천진암	8.22(금)~23(토)	전남	백양사, 천진암	음식명상
전주 서고사	9.20(토)~21(일)	전북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청소년 명상페스티벌, 선명상 템플스테이
남양주 봉선사	10.11(토) 또는 12(일)	경기	봉선사	펫명상, 간화선 걷기명상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